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 신유형 공략 안내서

# Contents

**출제기조 전환 핵심내용**

**04**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

인사혁신처 발표 전 문항 수록

**08**

**문항별 정답과 해설**

국어 이선재 / 영어 이동기

**19**

**신유형 전격 분석 및 학습법**

국어 이선재 / 영어 이동기

**36**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 출제기조 전환 핵심내용

“知彼知己 百戰百勝 (지피지기 백전백승)”

변화되는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핵심 변화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 2025년 9급 시험 출제기조 전환 한눈에 보기

### 대상 과목은 국어와 영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 목적 중 하나로 ‘직무수행과 밀접한 언어 능력 평가’를 꼽았습니다. 2025년부터 출제기조 전환이 적용되는 과목은 국어와 영어만 해당됩니다. 이외 과목은 기존의 출제기조가 유지됩니다.

###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됩니다.

이번 출제기조 전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출제기조 전환이 적용되는 시험은 9급 국가직과 지방직 공채시험, 9급 지역인재 시험입니다. 향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새로 적용되는 출제기조 전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검증된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출제기조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사고력 평가와 직무 연관성 증대입니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은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을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 적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과 밀접한 방향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와 밀접한 실용적 소재가 늘어나고 독해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이 문제풀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험	적용 과목	적용 시기	출제기조
9급 공채 국가직, 지방직, 9급 지역인재	국어 영어	2025년부터 적용	종합 사고력 평가 직무 연관성 증대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

인사혁신처 발표 전 문항 수록

**출제기조 전환이 적용된 예시문제를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9급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를  
국어, 영어 과목별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든 예시 문항을 확인해 보세요.  
과목별 20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변화되는 시험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 국 어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 ~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중복되는 표현을 삼갈 것.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킬 것.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것.

— <공문서> —

## 한국의약품정보원

수신 국립국어원

(경유)

제목 의약품 용어 표준화를 위한 자료회의 참석 ㉠ 안내 알림

1. ㉠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원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관련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의약품에 관한 ㉡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의약품의 표준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 ㉢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회의를 개최하니 귀원의 연구원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 안내
- ② ㉡: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해
- ③ ㉢: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④ ㉣: 의약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2.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의 품사에 따라 합성명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합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기도 하고,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강산’은 명사(강) + 명사(산)로, ‘젊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젊은) + 명사(이)로, ‘덮밥’은 용언 어간(덮) + 명사(밥)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끼리의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은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으로, 이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 용언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국어 문장 구성에 없는 단어 배열법인데 이런 유형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강산’은 두 성분 관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합성어인데, ‘젊은이’나 ‘덮밥’은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이다.

- ① 아버지의 형을 이르는 ‘큰아버지’는 종속합성어이다.
- ② ‘흰머리’는 용언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이다.
- ③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해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④ 동사 ‘먹다’의 어간인 ‘먹’과 명사 ‘거리’가 결합한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 다음 글의 ㉠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존경 표현에는 주어 명사구를 직접 존경하는 ‘직접존경’이 있고,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높이는 ㉠ ‘간접존경’도 있다. 전자의 예로 “할머니는 직접 용돈을 마련하신다.”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를 들 수 있다. 전자에서 용돈을 마련하는 행위를 하는 주어는 할머니이므로 ‘마련한다’가 아닌 ‘마련하신다’로 존경 표현을 한 것이다. 후자에서는 용돈이 주어이지만 할머니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사물이라서 ‘없다’가 아니라 ‘없으시다’로 존경 표현을 한 것이다.

- ① 고모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으시다.
- ②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신다.
- ③ 언니는 아버지가 너무 건강을 염려하신다고 말했다.
- ④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수영이 많으셨다고 들었다.

4.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소설과 현실의 관계를 온당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세계의 현실성, 문제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어 서사의 무대로 삼을 경우 세계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그 세계 안의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투하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낼 때 문제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할 때 해결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최인훈의 「광장」은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南)이나 북(北)이나’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짐으로써 ㉠을 확보하였다. 작품의 시공간으로 당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 세계로 선택함으로써 동서 냉전 시대의 보편성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도 확보하였다. 「광장」에서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은 남북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이원화된 이데올로기를 근저에서 흔들었다. 이로써 ㉢을 확보할 수 있었다.

㉠

㉡

㉢

- |           |         |         |
|-----------|---------|---------|
| ① 문제의 현실성 | 세계의 현실성 | 해결의 현실성 |
| ② 문제의 현실성 | 해결의 현실성 | 세계의 현실성 |
| ③ 세계의 현실성 | 문제의 현실성 | 해결의 현실성 |
| ④ 세계의 현실성 | 해결의 현실성 | 문제의 현실성 |

5.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
-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 ① 공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 ②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 ③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은 참석한다.
- ④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오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 6.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육사의 시에는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령, 「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조건이 3개의 연에 걸쳐 먼저 제시된 후,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연에 제시된다.

우선, 투사 이육사가 처한 상황은 대단히 위태로워 보인다. 그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같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 바라본 세상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어서 가냘픈 희망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발 제격디딜 곳조차 없다”는 데에 이르러 극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시인 이육사가 나서면서 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마지막 4연에서 시인은 3연까지 치달아 온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한 채,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보면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한다. 여기서 눈을 감는 행위는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새롭게 반성함으로써 현실의 진정한 면모와 마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읽힌다. 이는 다음 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라는 시구로 이어지면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마무리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시인의 인간됨으로 보인다.

- ① 「절정」에는 투사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뚜렷한 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
- ② 「절정」에서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새롭게 인식한다.
- ③ 「절정」은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투사와 시인이 반목과 화해를 거듭한다.
- ④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의 면모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투사의 면모가 동시에 담겨 있다.

## 7.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다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특히 주인공은 장애를 만나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영웅이 된다. 시청자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한 인물로 변화를 거듭할 때 그에게 매료된다.

(나)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로그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로그라인은 ‘장애, 목표, 변화, 영웅’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하며, 3분 이내로 압축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토리의 목적과 방향이 마련된다.

(다)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에서 스토리의 주제가 만들어진다. ‘사랑과 소속감, 안전과 안정, 자유와 자발성, 권력과 책임, 즐거움과 재미, 인식과 이해’는 수천 년 동안 성별, 나이, 문화를 초월하여 두루 통용된 주제이다.

(라) 시청자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초에 불과하다. 제작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나) - (다) - (가)

## 8. &lt;지침&gt;에 따라 &lt;개요&gt;를 작성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개 요>—

○ 제목: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I. 서론

1.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

2. ㉠

II.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

1. ㉡

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III.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1.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복지 제도의 미비점 보완

2. ㉢

IV. 결론

1. ㉣

2.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소 방안 마련

- ① ㉠: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사회 문제의 증가
- ②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
- ③ ㉢: 사회복지 업무 경감을 통한 공무원 직무 만족도 증대
- ④ ㉣: 복지 혜택의 범위 확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경과학자 아이젠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의 뇌를 ‘fMRI’ 기계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촬영하여 실험 참가자가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아이젠버거는 각 참가자에게 그가 세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고, 온라인에 각각 접속하여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각 그룹의 구성원 중 실제 참가자는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 실험이 시작되면 처음 몇 분 동안 셋이 사이좋게 순서대로 공을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험 참가자는 공을 받지 못한다.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계속 공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나머지 두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끼게 된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을 당할 때 그의 뇌에서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인간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이다. 연구팀은 이로부터 빈칸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① 물리적 폭력은 뇌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를 활성화한다
- ② 물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문제로 전환한다
- ③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④ 따돌림을 당할 때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는 서로 다르지 않다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로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소설에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의 원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영웅소설에서라면 중세의 인륜이 원형대로 보존된 세계이고, 가정소설에서라면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이다.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적대자에 의해 원점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겪는다.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것, 즉 그곳에서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시간을 서사적 현재라 한다면, 주인공이 도달해야 할 종결점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다시 도래할 과거로서의 미래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배열을 ‘회귀의 크로노토프’라고 한다.

근대소설 「무정」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한다. 이것은 주인공인 이형식과 박영채의 시간 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형식은 고아지만 이상적인 고향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박 진사의 집에서 영채와 함께하던 때의 기억이다. 이는 영채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박 진사의 집으로 표상되는 유년의 과거는 이상적 원점의 구실을 한다. 박 진사의 죽음은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을 상징한다. 두 사람의 결합이 이상적 상태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그들은 끝내 결합하지 못한다. 형식은 새 시대의 새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로의 복귀를 거부한다.

10.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정」과 고소설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무정」의 이형식은 그들의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③ 「무정」에서 이형식이 박영채와 결합했다면 새로운 미래로서의 종결점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가정소설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을 통해 상실했던 원점으로서의 복귀를 거부한다.

11.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 ② 사과가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돌아갔다.
- ③ 그는 잃어버린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 ④ 그녀는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걱정했다.

12.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 ].

- 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 ②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 ③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 ④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두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13. 다음 글의 ㉠ ~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인간이 젊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기존 발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노화가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거나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노화를 막는 장치가 개발된다면, 젊음을 유지한 채 수명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노화 문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는 초라하다. 이는 대부분 연구가 신약 개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에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이 노화를 ㉢ 질병으로 본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 노화를 질병으로 보더라도 해당 약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화 문제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덕분에 신약 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일반 사람들에게 비해 ㉣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리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 ① ㉠: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담담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다
- ② ㉡: 노화가 진행되기 전의 신체를 노화가 진행된 신체
- ③ ㉢: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
- ④ ㉣: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촉진

14. ㉠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흔히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말을 한다. 서로 다른 빛깔의 띠 일곱 개가 무지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비롯해 다른 자연언어들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해당 자연언어가 무지개의 색상에 대응하는 색채 어휘를 일곱 개씩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자 사피어와 그의 제자 워프는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무지개의 띠가 몇 개냐고 물었다. 대답은 제각각 달랐다. 사피어와 워프는 이 설문 결과에 기대어,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얽매인 채 세계를 경험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모국어가 그어놓은 선에 따라 자연세계를 분단한다.”라는 유명한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하는 것이다.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이 견해는 ㉠ 사피어-워프 가설이라 불리며 언어학과 인지과학의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보 기>

- ㄱ. 눈[雪]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1개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들보다 눈을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을 강화한다.
- ㄴ.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인 피라하족의 사람들이 세 개 이상의 대상을 모두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을 강화한다.
- ㄷ. 색채 어휘가 적은 자연언어 화자들이 색채 어휘가 많은 자연언어 화자들에 비해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을 약화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15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㉑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한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고, 인간은 신과의 결합을 통해 혼자 할 수 없었던 존재론적 상승을 이룬다.

한국 건국신화에서 주인공인 신은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㉒ 바라는 것인데, 인간들의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결핍을 메운다. 무속신화에서는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㉓ 거듭나게 됨으로써 존재론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국 신화와 달리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다. 히브리 신화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유일신에 대해 원초적 부채감을 지니고 있으며, 신이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인간의 우위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북유럽이나 바빌로니아 등에 ㉔ 퍼져 있는 신체 화생 신화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신체 화생 신화는 신이 죽음을 맞게 된 후 그 신체가 해체되면서 인간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신의 희생 덕분에 인간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신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1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히브리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위계적이다.
- ② 한국 무속신화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된다.
- ③ 한국 건국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된다.
- ④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체 화생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다르다.

16. ㉑ ~ ㉔과 바꿔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비교해
- ② ㉒: 희망하는
- ③ ㉓: 복귀하게
- ④ ㉔: 분포되어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먼저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병: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 아닐까?  
병: 맞아.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데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면 결국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붕괴하고 말 거야.  
을: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떤 사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범죄자의 징표로 인식되기도 해.

- ① 화제에 대해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이 있다.
- ②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
- ③ 대화가 진행되면서 논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
- ④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사람이 있다.

[18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유명한 원형 석조물인 스톤헨지는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시대에 세워졌다. 1960년대에 천문학자 호일이 스톤헨지가 일종의 연산장치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엔지니어인 톰은 태양과 달을 관찰하기 위한 정교한 기구라고 확신했다. 천문학자 호킨스는 스톤헨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고고학자 앳킨슨은 ㉑ 그들의 생각을 비난했다. 앳킨슨은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㉒ 이들은 호킨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진화적 관점에서 앳킨슨을 비판하였다. ㉓ 이들은 신석기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4만 년 전의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했으며 지능 또한 우리보다 열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못했다. ㉔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2,500년에 걸쳐 수학과 천문학의 지식이 보존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쌓인 방대하고 정교한 문자 기록이 없었다. 선사시대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누구나 우리와 같은 동기와 관심, 개념적 틀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18. 밑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후대 기록이 발견되면 호킨스의 주장은 강화될 것이다.
- ② 스톤헨지 건설 당시의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호일의 주장은 약화될 것이다.
- ③ 스톤헨지의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신석기시대 기록물이 발견되면 글쓴이의 주장은 강화될 것이다.
- ④ 기원전 3,000년경 인류에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앳킨슨의 주장은 약화될 것이다.

19. 문맥상 ㉑ ~ ㉔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① ㉑, ㉒
- ② ㉒, ㉓
- ③ ㉑, ㉒, ㉔
- ④ ㉑, ㉒, ㉓

20.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②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③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④ 예술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영 어

[1 ~ 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Recently, increasingly \_\_\_\_\_ weather patterns, often referred to as “abnormal climate,” have been observed around the world.

① irregular  
② consistent  
③ predictable  
④ ineffective

2. Most economic theories assume that people act on a \_\_\_\_\_ basis; however, this doesn't account for the fact that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① temporary  
② rational  
③ voluntary  
④ commercial

3. By the time she \_\_\_\_\_ her degree, she will have acquired valuable knowledge on her field of study.

① will have finished  
② is finishing  
③ will finish  
④ finishes

[4 ~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 You may conclude that knowledge of the sound systems, word patterns, and sentence structures ① are sufficient to help a student ② become competent in a language. Yet we have ③ all worked with language learners who understand English structurally but still have difficulty ④ communicating.

5. Beyond the cars and traffic jams, she said it took a while to ① get used to have so many people in one place, ② all of whom were moving so fast. “There are only 18 million people in Australia ③ spread out over an entire country,” she said, “compared to more than six million people in ④ the state of Massachusetts alone.”

[6 ~ 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6. A: Hello. I'd like to book a flight from Seoul to Oakland.  
B: Okay. Do you have any specific dates in mind?  
A: Yes. I am planning to leave on May 2nd and return on May 14th.  
B: Okay, I found one that fits your schedule. What class would you like to book?  
A: Economy class is good enough for me.  
B: Any preference on your seating?  
A: \_\_\_\_\_  
B: Great. Your flight is now booked.

① Yes. I'd like to upgrade to business class.  
② No. I'd like to buy a one-way ticket.  
③ No. I don't have any luggage.  
④ Yes. I want an aisle seat.

7.

Kate Anderson  
Are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Friday?  
10:42

Jim Henson  
I'm not sure.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day.  
10:42

Kate Anderson  
You should come! The workshop is about A.I. tools that can improve our work efficiency.  
10:43

Jim Henson  
Wow,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  
10:44

Kate Anderson  
Exactly. But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if you want to attend the workshop.  
10:45

Jim Henson  
How do I do that?  
10:45

Kate Anderson  
\_\_\_\_\_  
\_\_\_\_\_  
10:46

① You need to bring your own laptop.  
② I already have a reservation.  
③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bulletin board.  
④ You should call the doctor's office for an appointment.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Send Preview Save

To Clifton District Office

From Rachael Beasley

Date June 7

Subject Excessive Noise in the Neighborhood

✎ My PC Browse

Times New 10pt G G G G

To whom it may concern,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I a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regarding the excessive noise levels in our neighborhood, specifically coming from the new sports field.

As a resident of Clifton district, I have always appreciated the peace of our community. However, the ongoing noise disturbance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my family's well-being and our overall quality of life. The sources of the noise include crowds cheering, players shouting, whistles, and ball impacts.

I kindly request that you look into this matter and take appropriate steps to address the noise disturbanc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I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to help restore the tranquility in our neighborhood.

Sincerely,  
Rachael Beasley

8.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육대회 소음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려고  
 ② 새로 이사 온 이웃 주민의 소음에 대해 항의하려고  
 ③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려고  
 ④ 밤시간 악기 연주와 같은 소음의 차단을 부탁하려고

9. 밑줄 친 “steps”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movements  
 ② actions  
 ③ levels  
 ④ stairs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We're pleased to announce the upcoming City Harbour Festival, an annual event that brings our diverse community together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culture, and local talent. Mark your calendars and join us for an exciting weekend!

**Details**

- **Dates:** Friday, June 16 – Sunday, June 18
- **Times:** 10:00 a.m. – 8:00 p.m. (Friday & Saturday)  
10:00 a.m. – 6:00 p.m. (Sunday)
- **Location:** City Harbour Park, Main Street, and surrounding areas

**Highlights**

- **Live Performances**  
Enjoy a variety of live music, dance, and theatrical performances on multiple stages throughout the festival grounds.
- **Food Trucks**  
Have a feast with a wide selection of food trucks offering diverse and delicious cuisines, as well as free sample tastings.

For the full schedule of events and activitie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cityharbourfestival.org](http://www.cityharbourfestival.org) or contact the Festival Office at (552) 234-5678.

10. (A)에 들어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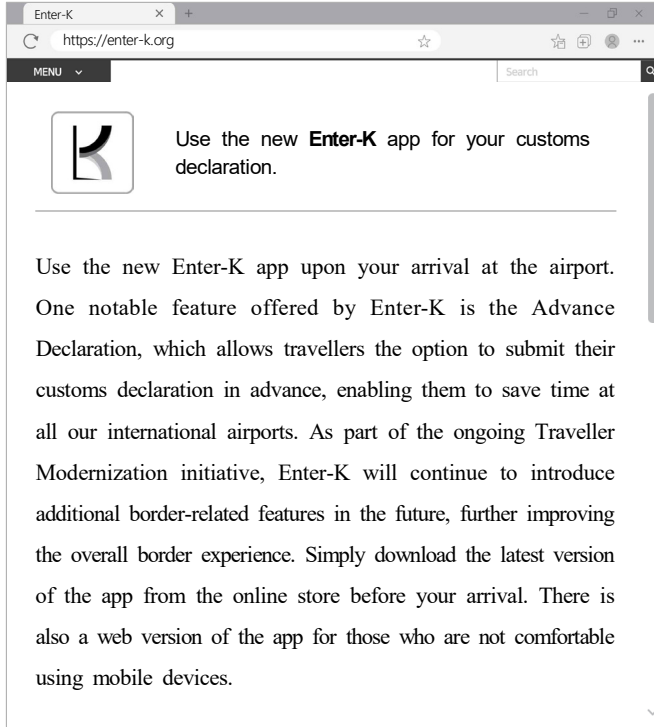
- ① Make Safety Regulations for Your Community  
 ② Celebrate Our Vibrant Community Events  
 ③ Plan Your Exciting Maritime Experience  
 ④ Recreate Our City's Heritage

11. City Harbour Festival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② 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열린다.  
 ③ 주요 행사로 무료 요리 강습이 진행된다.  
 ④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행사 일정을 알 수 있다.



12. Enter-K 앱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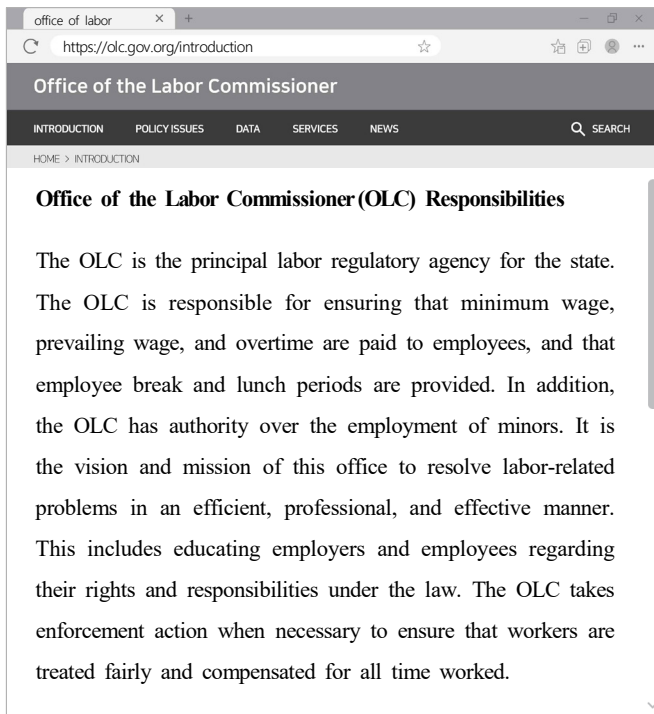


Use the new **Enter-K** app for your customs declaration.

Use the new Enter-K app upon your arrival at the airport. One notable feature offered by Enter-K is the Advance Declaration, which allows travellers the option to submit their customs declaration in advance, enabling them to save time at all our international airports. As part of the ongoing Traveller Modernization initiative, Enter-K will continue to introduce additional border-related features in the future, further improving the overall border experience. Simply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the app from the online store before your arrival. There is also a web version of the app for those who are not comfortable using mobile devices.

- ① It allows travellers to declare customs in advance.
- ② More features will be added later.
- ③ Travellers can download it from the online store.
- ④ It only works on personal mobile devices.

13.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OLC) Responsibilities**

The OLC is the principal labor regulatory agency for the state. The OLC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minimum wage, prevailing wage, and overtime are paid to employees, and that employee break and lunch periods are provided. In addition, the OLC has authority over the employment of minors. It is the vision and mission of this office to resolve labor-related problems in an efficient, professional, and effective manner. This includes educating employers and employees regarding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law. The OLC takes enforcement action when necessary to ensure that workers are treated fairly and compensated for all time worked.

- ① It ensures that employees pay taxes properly.
- ② It has authority over employment of adult workers only.
- ③ It promotes employers' business opportunities.
- ④ It takes action when employees are unfairly treated.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arned that cases of food poisoning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cross-contamination, where people touch eggs and neglect to wash their hands before preparing food or using utensils. To mitigate such risks, the ministry advised refrigerating eggs and ensuring they are thoroughly cooked until both the yolk and white are firm. Over the past five years, a staggering 7,400 people experienced food poisoning caused by Salmonella bacteria. Salmonella thrives in warm temperatures, with approximately 37 degrees Celsius being the optimal growth condition.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eggs and failing to separate raw and cooked food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common causes of Salmonella infection. It is crucial to prioritize food safety measures and adhere to proper cooking practices to minimize the risk of Salmonella-related illnesses.

- ① Benefits of consuming eggs to the immune system
- ② Different types of treatments for Salmonella infection
- ③ Life span of Salmonella bacteria in warm temperatures
- ④ Safe handling of eggs for the prevention of Salmonella infection

1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spite ongoing efforts to address educational disparities, the persistent achievement gap among students continues to highlight significant inequities in the education system. Recent data reveal that marginalized students, including those from low-income backgrounds and vulnerable groups, continue to lag behind their peers in academic performance. The gap poses a challenge to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xperts emphasize the need for targeted interventions, equitable resource allocation, and inclusive policies to bridge this gap and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irrespective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or background. The issue of continued educational divide should be addressed at all levels of education system in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 ① We should deal with persistent educational inequities.
- ② Educational experts need to focus on new school policies.
- ③ New teaching methods are necessary to bridge the achievement gap.
- ④ Family income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education.

16.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Every parent or guardian of small children will have experienced the desperate urge to get out of the house and the magical restorative effect of even a short trip to the local park. ① There is probably more going on here than just letting off steam. ② The benefits for kids of getting into nature are huge, ranging from better academic performance to improved mood and focus. ③ Outdoor activities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④ Childhood experiences of nature can also boost environmentalism in adulthood. Having access to urban green spaces can play a role in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friendships.

17.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particular, in many urban counties, air pollution, as measured by the amount of total suspended particles, had reached dangerous levels.

Economists Chay and Greenstone evaluated the value of cleaning up of air pollution after the Clean Air Act of 1970. ( ① ) Before 1970, there was little federal regulation of air pollution, and the issue was not high on the agenda of state legislators. ( ② ) As a result, many counties allowed factories to operate without any regulation on their pollution, and in several heavily industrialized counties, pollution had reached very high levels. ( ③ ) The Clean Air Act established guidelines for what constituted excessively high levels of five particularly dangerous pollutants. ( ④ ) Following the Act in 1970 and the 1977 amendment, there were improvements in air quality.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fore anyone could witness what had happened, I shoved the loaves of bread up under my shirt, wrapped the hunting jacket tightly about me, and walked swiftly away.

- (A) When I dropped them on the table, my sister's hands reached to tear off a chunk, but I made her sit, forced my mother to join us at the table, and poured warm tea.  
 (B) The heat of the bread burned into my skin, but I clutched it tighter, clinging to life. By the time I reached home, the loaves had cooled somewhat, but the insides were still warm.  
 (C) I sliced the bread. We ate an entire loaf, slice by slice. It was good hearty bread, filled with raisins and nuts.

-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19 ~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

Falling fertility rates are projected to result in shrinking populations for nearly every country by the end of the century. The global fertility rate was 4.7 in 1950, but it dropped by nearly half to 2.4 in 2017. It is expected to fall below 1.7 by 2100. As a result, some researchers predict that the number of people on the planet would peak at 9.7 billion around 2064 before falling down to 8.8 billion by the century's end. This transition will also lead to a significant aging of populations, with as many people reaching 80 years old as there are being born. Such a demographic shift \_\_\_\_\_, including taxation, healthcare for the elder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and retirement. To ensure a "soft landing" into a new demographic landscape, researchers emphasize the need for careful management of the transition.

- ① raises concerns about future challenges  
 ② mitigates the inverted age structure phenomenon  
 ③ compensates for the reduced marriage rate issue  
 ④ provides immediate solu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20.

Many listeners blame a speaker for their inattention by thinking to themselves: "Who could listen to such a character? Will he ever stop reading from his notes?" The good listener reacts differently. He may well look at the speaker and think, "This man is incompetent. Seems like almost anyone would be able to talk better than that." But from this initial similarity he moves on to a different conclusion, thinking "But wait a minute. I'm not interested in his personality or delivery. I want to find out what he knows. Does this man know some things that I need to know?" Essentially, we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Is the speaker to be held responsible because we are poorly equipped to comprehend his message? We cannot understand everything we hear, but one sure way to raise the level of our understanding is to \_\_\_\_\_.

- ① ignore what the speaker knows  
 ② analyze the character of a speaker  
 ③ assume the responsibility which is inherently ours  
 ④ focus on the speaker's competency of speech delivery

# 문항별 정답과 해설

국어 이선재

영어 이동기

## 문항별로 확인하는 정답과 해설!

출제기조 전환이 적용된 예시 문항을 공단기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출제기조 전환 적용 문항별 정답과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문항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 문항별 정답과 해설 국어 공단기 국어 이선재

### 국어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①	④	②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④	②	③	①	④	②	①

※ 지면 사정상 정답률이 낮은 문제에만 자세한 해설을 싣고, 나머지 문항은 간략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공단기 홈페이지의 이선재 강사 해설 강의 또는 이후 출간될 선재국어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 정답률은 선재국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결과입니다.

### 1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41% / 재시생 59%)

**해설**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와 같이 ‘과’ 앞뒤의 문장 구조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안내 알림(×) → 안내(○)/알림(○)**: 중복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안내’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줌. 또는 그런 일’을 뜻하고, ‘알림’은 ‘알게 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뜻한다. ‘안내’와 ‘알림’이 비슷한 뜻이므로 둘 중 하나만 쓴다.

③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본원은’과 호응할 수 있도록 서술어를 ‘제공하고’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선하다’는 ‘...을 개선하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의약품 용어를 ~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와 같이 ‘개선하다’ 앞에 적절한 목적어를 넣어 주어야 한다.

#### 대비전략 문법: 공문서 바로 쓰기

잉여적 표현, 문장의 호응, 병렬 구조 등 <통사론: 올바른 문장 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문서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출제된 문제이다. 앞으로 실용 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법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 2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25% / 재시생 45%)

**해설** ‘힘머리’는 용언의 관형사형(힘) + 명사(머리)로 구성된 합성 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힘’은 용언 ‘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오답 풀이** ① ‘큰아버지’는 용언의 관형사형(큰) + 명사(아버지)로 구성된 합성 명사로,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은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③ ‘늙은이’는 용언 ‘늙다’의 관형사형(늙은) +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먹거리’는 용언의 어간(먹) + 의존 명사(거리)로 구성된 합성 명사이다. 용언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국어 문장 구성에 없는 배열법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 대비전략 문법: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정답률이 낮게 나온 문법 문제이다. 지문에 통사적 합성어나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풀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법 영역은 수능형으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 3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52% / 재시생 64%)

**해설** ㉠ ‘간접 존경’은 주체 높임법 중 간접 높임을 말한다. 문장의 주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법이다. ‘아버지가 건강을 너무 염려하시다’에서 주어는 ‘아버지’이고, 서술어인 ‘염려하시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의 의미인 ‘염려하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 ‘간접 존경’이 아니라 주어를 직접 존경하는 직접 존경이 쓰인 것이다. 나머지 ㉠ · ㉡ ·

④는 모두 ㉠의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고모는 자식이 있으시다**: ‘자식’이 주어이지만 존경의 대상인 ‘고모’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므로 ‘있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간접 존경 표현을 했다.
- ②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가 주어이지만 존경의 대상인 ‘할머니’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신체 부위이므로 ‘아프다’가 아니라 ‘아프시다’로 간접 존경 표현을 했다.
- ④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셨다고**: ‘수염’이 주어이지만 존경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신체 부위이므로 ‘많다’가 아니라 ‘많으시다’로 간접 존경 표현을 했다.

**대비전략 문법: 통사론 -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의 올바른 쓰임이 출제되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하고 올바른 쓰임을 익히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법 이론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꼈다.

**4** **정답** ① (정답률: 초시생 67% / 재시생 71%)

- 해설** ㉠ 최인훈의 <광장>은 자신을 둘러싼 밀실과 광장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이나 북이나’라는,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 볼 의제를 꺼냈다. 이러한 점에서 <광장>은 1문단의 “그 세계 안의 ~ 문제의 현실성이 확보된다”에 부합하므로, ‘문제의 현실성’을 확보한 것이다.
- ㉡ <광장>은 냉전 시대의 보편성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당시의 남한과 북한을 소설의 시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광장>은 1문단의 “우리가 살고 있는 ~ 세계의 현실성이 확보된다”에 부합하므로, ‘세계의 현실성’을 확보한 것이다.
- ㉢ <광장>의 주인공은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결말은 남북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이원화된 이데올로기를 근거에서 흔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광장>은 1문단의 “한 사회가 완강하게 ~ 해결의 현실성이 확보된다”에 부합하므로, ‘해결의 현실성’을 확보한 것이다.

**대비전략 독해: 빈칸 추론**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로,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구를 넣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다.

**5** **정답** ④ (정답률: 초시생 49% / 재시생 60%)

- 해설** 가언 삼단 논법(p이면 q이다 - q이면 r이다 - p이면 r이다)에 따라,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을 통해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p이면 q이다’인 가정적 조건문에서 대우(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항상 참이다. 따라서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오 주무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참이다. \* **대우 규칙**:  $p \rightarrow q = \sim q \rightarrow \sim p$

- 오답 풀이** ①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를 대우한 ‘공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은 참석한다’는 참이다. 이를 ①과 연결하면, ‘공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이 참석하여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가 된다. 그러나 주어진 두 번째 진술(‘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에 따라 후건을 긍정해 전건을 긍정한 명제는 오류이다.
- ② 가언 삼단 논법으로 도출한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에서 전건을 긍정하여 후건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오류이다.
- ③ 두 번째 진술의 대우인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박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와 세 번째 진술인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를 고려할 때,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박 주무관과 공 주무관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대비전략** 논리: 연역 추리 - 타당한 결론 도출

2025년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논리 영역의 문제이다. 제시된 세 개의 명제가 모두 가정적 조건문이므로, 가언 삼단 논법과 대우 규칙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기본적인 형식 논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며, 삼단 논법과 대우 규칙은 기존 공무원 수업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게 나왔다.

6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63% / 재시생 74%)

**해설** 마지막 문단에서 ②가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인 이육사는 마지막 연에서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하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라며 현실을 새롭게 성찰하고 있다.

**대비전략** 독해: 내용 일치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 내용 일치 문제이다. 1회독을 할 때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여 빠르게 풀어야 하는 유형이다.

7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91% / 재시생 92%)

**해설**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자가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쓰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통용된 주제가 만들어 진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대비전략** 독해: 내용 배열

문장이나 문단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제 유형이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서 접속어, 지시어 등을 살피며 풀어야 한다.

8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88% / 재시생 89%)

**해설** <지침>에 따라 본론은, 제목인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㉔에는 Ⅱ-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증대하는 내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대비전략** 독해: 개요 작성 및 수정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개요를 수정하는 문제 유형이다. 개요의 내용은 위계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층위를 맞추어 신속하게 올바른 내용을 골라야 한다.

9 **정답** ④ (정답률: 초시생 91% / 재시생 85%)

**해설** 아이젠버거의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낄 때 그의 뇌에서 전두엽의 전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인간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다. 이를 통해 따돌림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추리해 낼 수 있다.

**대비전략** 독해: 내용 추론 - 생략된 문장

전체의 맥락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결론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찾아야 한다.

10 10

?

11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73% / 재시생 62%)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이형식과 박채영은 박 진사의 집으로 표상되는 유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상적 원점의 구실을 한다. 그리고 박 진사의 죽음으로 이형식과 박채영은 이상적 원점을 상실한다.

11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99% / 재시생 97%)

**해설** ㉠ ‘돌아가다’는 ‘원래의 있던 곳으로 다시 가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대비전략 독해: 복합 지문 - 내용 추론과 문맥적 의미**

하나의 지문에 유형이 다른 두 개의 문제를 출제한 유형이다. 세트 문제 형식이지만, 기존에 많이 출제된 익숙한 유형의 문제이다. 추론은 반드시 제시문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라. 또한 문맥적 의미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12 **정답** ① (정답률: 초시생 45% / 재시생 31%)

**해설** (가)와 (나)의 표준 정언 명제를 기호화하면, (가)는 ‘노인복지m ∧ ~일자리’, (나)는 ‘공직 → 일자리’이다. 그리고 (나)를 대우 법칙에 따라 정리하면 ‘~일자리 → ~공직’이다. ‘~일자리’가 중복되므로 연쇄 형식에 따라, (가)와 (나)는 ‘노인복지 m (∧ ~일자리) → ~공직’이 된다. 이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노인복지m)은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공직)’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대비전략 논리: 형식 논리 - 생략된 전제 찾기**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정언 명제와 이를 활용한 연역적 추론을 학습해야 하는 문제이다. 논리 문제의 풀이 방식에는 ① 기호화를 이용한 풀이, ②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 ③ 술어 논리를 활용한 풀이 등이 있다. 이 중 수험에서는 ① + ③ 명제 형식의 기호화를 이용한 풀이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표준 정언 명제의 형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호화하는 방식을 익힌 뒤, 논리적 동치와 함축 규칙을 적용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등을 학습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방식을 익혀 두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논리 수업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을 익히게 된다.

13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88% / 재시생 78%)

**해설** 대부분의 노화 연구는 신약 개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었고, 현재 기준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화를 질병으로 보면, 신약이 승인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에서는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라고 했으므로 ㉠은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대비전략 독해: 제시문의 내용 수정하기**

글에서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어구를 수정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서 반의어, 연결 부분, 적절한 어휘의 선택 등에 유의하며 문제를 풀도록 한다.

14 **정답** ④ (정답률: 초시생 38% / 재시생 62%)

**해설** ㄱ. 2문단에 따르면, ㉠ ‘사피어-워프 가설’은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어 화자들보다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눈을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을 지지하는 근거이므로 ㉠을 강화한다.



- ㄴ. ㉠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에 얽매인 채 세계를 경험한다고 판단했다. 피라하족이 수를 세는 단어가 세 개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상을 모두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세 개 이상의 대상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언어에 기대어 세계를 경험한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을 강화한다.
- ㄷ. 색채 어휘가 적은 자연 언어의 화자들이 색채 어휘가 많은 화자들보다 색채를 더 잘 구별한다는 것은,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한다는 ㉠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므로 ㉠을 약화한다.

**대비전략 독해: 논증 평가 - 강화와 약화**

추론형 문제에서 난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논증 평가 문제이다.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강화와 약화 그리고 논점 이탈(무관)로 분류하여 적절한 선택지를 고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논증의 강화와 약화 범주를 파악하는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15 15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60% / 재시생 75%)

해설 한국 무속 신화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건국 신화에서는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 결합하여 신적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의, 히브리 신화에서 신은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인간의 우위에 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1~2문단에 따르면, 한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한국 건국 신화에서 인간들의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한다.

④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이다. 반면 신체 화생 신화는 신의 희생 덕분에 인간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므로 인간과 신은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이다.

16

정답 ③ (정답률: 초시생 91% / 재시생 96%)

해설 ㉠ ‘거듭나다’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되다 /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을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의 의미인 ‘復歸(돌아올 복, 돌아올 귀)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비전략 독해: 복합 지문 - 내용 이해와 어휘**

앞에서도 출제되었던 복합 지문 형태의 문제이다. 정보 확인을 바탕으로 한 내용 일치 문제와 함께 어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 한자 어휘와 결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해와 함께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어휘력을 신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17 정답 ① (정답률: 초시생 49% / 재시생 63%)

해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윤리적 차원으로 바라본 갑, 병과 달리 을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라며 문화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갑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을 비판하자, 을은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자 갑은 “개인의 자유로운 ~ 보편적 상식 아닐까?”에서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라는 화제를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갑, 을, 병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찬반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

④ “어떤 사회에서는 ~ 인식되기도 해”에서 을은 마스크 착용을 문화적 차원으로 바라본 사례를 제시하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하고 있지는 않다.

**대비전략 독해: 화법 - 말하기 방식**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화법 문제이다. 제시문의 내용과 함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빠르게 분석하도록 한다.

18 18

19

**정답** ④ (정답률: 초시생 45% / 재시생 63%)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앳킨슨은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원전 3,000년경 인류에게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앳킨슨의 주장이 반박되므로 앳킨슨의 주장은 약화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기록은 스톤헨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라는 호킨스의 견해와 무관하다.

② 호일은 스톤헨지가 일종의 연산 장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톤헨지 건설 당시의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호일의 견해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될 것이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글쓰이는, 스톤헨지가 건설되던 시기에는 정교한 문자 기록이 없어서 그들이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더라도 수학과 천문학의 지식이 보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톤헨지의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기록물이 발견되면, 글쓰이의 견해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될 것이다.

19

**정답** ② (정답률: 초시생 52% / 재시생 55%)

**해설** ㉠ ‘그들’은 앳킨슨이 비난한 사람들이므로 ‘호일, 톰, 호킨스’를 의미한다. ㉡ ‘이들’은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르면서, 앳킨슨이 ‘야만인’으로 묘사한 대상이므로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 ‘이들’은 4만 년 전의 사람들, 현재 우리들의 지능과 비교되는 대상이므로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포함된 문장은 앞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 ‘그들’은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은 ㉡·㉢·㉣이다.

**대비전략 독해: 복합 지문 - 논증 평가와 정보 확인**

앞에서도 출제되었던 논증 평가 문제이다. 먼저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 뒤, 이를 찬성하거나 뒷받침하는 내용은 강화로, 반대하거나 반례를 제시하는 내용은 약화로 평가한다. 또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세트로 출제되었다.

20

**정답** ① (정답률: 초시생 25% / 재시생 20%)

**해설** • 첫 번째 방식: 삼단 논법의 형식적 오류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

삼단 논법은 세 쌍의 개념 중 하나의 개념을 매개념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대표적인 연역 추론이다. 이 논증은 ‘문학’, ‘자연’, ‘예술’이라는 세 쌍의 개념의 배치를 통해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때 매개념은 반드시 주연(周延, distribution)되어야 하는데, 이 논증은 대전제에 위치한 매개념과 소전제에 위치한 매개념인 ‘자연’이 모두 주연되지 않았다(긍정문과 특칭은 주연되지 않음). 즉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가 있는 논증이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자연과 문학 개념의 외연 관계를 보여 주면서 매개념인 ‘자연’을 주연한 명제, 즉 특칭을 전칭으로 바꾼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추가되어야 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 두 번째 방식: 정언 명제를 기호화하여 푸는 방식

먼저 표준 정언 명제 중, 전칭(모든)과 특칭(어떤)을 기호화한 뒤, 이를 복합 명제로 연결해 주는 기호화를 익혀야 한다(해설에서는 편의상 약식으로 기호화를 하였다.).

[전제 1]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 문학 → 자연

[전제 2]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 자연m ∧ 예술m

[결론] 따라서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크) 예술 $m \wedge$  문학 $m$

교환 법칙에 따라 연언지의 순서를 바꾸면 '(크) 문학 $m \wedge$  예술 $m$ '이므로,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문학' 개념의 관계가 밝혀지면 된다. [전제 1]에 '문학  $\rightarrow$  자연'이 있으므로 '자연  $\rightarrow$  문학'을 추가하면 두 개념의 외연이 일치하므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가해야 할 전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이다.

**대비전략** 논리: 연역 추리 - 타당한 결론의 도출

신유형인 논리 문제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이다. 논리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마 다음의 해설이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술어 논리를 활용하여 표준 명제를 기호화하는 방식, 정언 삼단 논법의 형식적 관계에 대한 이론 등을 익혀야 한다. 여기에 수록된 해설은 다양한 풀이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한 해설인데, 해설이 많이 어렵다면 이후 《선재국어 논리》를 꼭 학습하기 바란다.

## 문항별 정답과 해설 영어 공단기 영어 이동기

### 영어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①	①	④	③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④	①	③	③	②	①	③

※ 출제기조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영어 과목의 변화사항과 종합적인 영어 고득점 학습법은 다음 목차인 <신유형 전격 분석 및 학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정답 ①

**어휘** increasingly 점점 더 weather pattern 날씨 패턴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abnormal 비정상적인 observe 관찰하다 irregular 불규칙한 consistent 일관된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ineffective 효과적이지 못한

**해석** 최근에, 종종 ‘비정상적인 기후’라고 불리는 점점 더 불규칙한 날씨 패턴들이 전 세계에서 관측되어왔다.

#### 2 정답 ②

**어휘** economic 경제의 theory 이론 assume 가정하다 act on ~에 따라서 행동하다 basis 기준 account for 설명하다 rely on 의존하다 temporary 일시적인 rational 이성적인 voluntary 자발적인 commercial 상업적인

**해석**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종종 감정에 대신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 3 정답 ④

**어휘** degree 학위 과정 acquire 얻다 valuable 귀중한 field 분야

**해석** 그녀가 학위 과정을 끝마칠 때쯤에, 그녀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귀중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해설** **문법포인트** 시제 일치와 예외 미래를 표현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표현할 때 will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By the time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에 있는 빈칸에는 동사의 현재형인 ④ finishes가 들어가야 한다.

#### 4 정답 ①

**어휘**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sentence 절 structure 구조 sufficient 충분한 competent 능숙한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해석** 소리 체계, 단어 패턴,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은 학생이 어떤 언어에서 능숙해지는 것을 돕기에 충분하다고 당신은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언어 학습자들과 전적으로 함께 일했다.

**해설** ① **문법포인트** 주어-동사 수 일치 are의 주어는 앞의 knowledge로 단수 명사이다. 따라서 동사도 단수인 is로 고쳐야 한다. (are → is)

② **문법포인트** 불완전타동사와 동작의 목적격보어 become은 동사 help의 목적격보어이다. help는 동사원형이나 to 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므로 동사원형인 become이 바르게 쓰였다.

③ **문법포인트** 형용사 vs. 부사 all은 부사로 뒤의 worked를 바르게 수식하고 있다.

④ **문법포인트** 준동사 주요 표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인 have difficulty (in) -ing에서 동명사 communicating이 바르게 쓰였다.

5 정답 ①

어휘 traffic jam 교통 체증 while 잠시 spread out 펼쳐다 entire 전체의 compared to ~에 비하면 alone ~하나만으로도

해석 차들과 교통 체증을 넘어서, 그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는데, 그들 모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잠시 걸렸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에만 6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호주에는 겨우 1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 있지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해설 ① [문법포인트] 전치사의 목적어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은 「be/get used to + (동)명사」로 표현한다. 이때 to는 전치사이므로 명사나 동명사가 연결되어야 한다. 참고로, 「be used to + 동사원형」은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to have를 to having으로 고쳐야 한다. (to have → to having)

② [문법포인트] 관계대명사의 선택 선행사 many people에 대한 관계대명사이면서 관계대명사절에서는 「all of + 목적격」의 형태로 주어 역할을 해야 한다. 선행사가 사람명사이면서 목적격이어야 하므로 whom이 바르게 쓰였다.

③ [문법포인트] 현재분사 vs. 과거분사 동사 are가 앞에 있으므로 spread가 다시 동사로 쓰일 수는 없다. spread는 people을 수식하는 분사가 되어야 한다. people과 타동사 spread가 ‘사람들이 퍼져 있는’이라는 수동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분사 spread가 바르게 쓰였다.

④ [문법포인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in 뒤에 목적어로 명사어구 the state of Massachusetts가 바르게 쓰였다. 또한 alone은 명사와 대명사 뒤에서 특정한 그것 하나만을 나타낼 때 쓰인다. the state of Massachusetts 뒤에서 ‘매사추세츠주 하나에서만’이란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6 정답 ④

어휘 book 예약하다 have ~ in mind ~을 계획하다 specific 특별한 fit 맞다 preference 선호하는 것 upgrade 등급을 올리다 one-way 편도의 luggage 수화물 aisle 통로

해석 A: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كل랜드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B: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하신 특별한 날이 있나요?

A: 예. 저는 5월 2일에 출발해서 5월 14일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B: 알겠습니다, 당신의 일정에 맞는 항공편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떤 등급으로 예약하기를 원하시나요?

A: 이코노미 등급이면 충분합니다.

B: 선호하시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A: 예, 통로 쪽 좌석을 원합니다.

B: 네. 당신의 비행기 좌석이 이제 예약되었습니다.

① 예, 비즈니스 등급으로 등급을 올리고 싶습니다.

② 아니요, 전 편도 티켓을 사고 싶습니다.

③ 아니요, 전 수화물이 없습니다.

7 정답 ③

어휘 appointment 예약 A.I.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tool 도구 improve 향상시키다 efficiency 효율성 reserve 예약하다 seat 자리 attend 참석하다 laptop 노트북 instruction 지침 bulletin board 게시판

해석 Kate Anderson: 다음 주 금요일 워크숍에 올 거니?

Jim Henson: 잘 모르겠어.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

Kate Anderson: 꼭 오기를! 워크숍은 우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 지능 도구에 관한 거래.

Jim Henson: 와, 주제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

Kate Anderson: 맞아.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하고 싶다면 자리 예약하는 걸 잊지 마.

Jim Henson: 어떻게 하지?

Kate Anderson: 게시판에 있는 지침을 따르면 돼.

① 노트북을 가져와야 해.

② 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

④ 진료실에 전화로 예약해야 해.

8 정답 8 ③, 9 ②

어휘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에게 frustration 불만 sports field 운동장 resident 거주자  
appreciate 음미하다, 고마워하다 disturbance 방해 cheer 환호하다 shout 고함지르다 whistle 호각  
impact 타격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 appropriate 적절한 address 다루다 attention 관심 prompt 즉각적인  
response 조치 tranquility 평온함 sincerely 진심을 담아(편지의 맺음말) movement 움직임 action 조치  
level 수준 stair 계단

해석 받는 사람: 클린턴 지역 사무소  
보낸 사람: Rachael Beasley  
날짜: 6월 7일  
제목: 주변 지역의 과도한 소음

담당자분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특히, 새로 지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수준에 관한 저의 우려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클린턴 지역의 거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우리 지역의 평화를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음 방해가 내 가족의 행복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군중들의 환호, 선수들의 고함, 호각 소리, 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소음 방해를 다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동네의 평온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도록 돕는 당신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Rachael Beasley

해설 8. 이메일은 제목이 중심 소재이고, 일반적으로 글의 목적을 서두에 밝히는 두괄식 구조를 취한다. 제목란에 ‘주변 지역의 과도한 소음’이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특히, 새로 지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수준에 관한 저의 우려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라고 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려고’가 가장 적절하다. 체육대회, 새로 이사 온 주민, 악기 연주 등은 언급되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9. 이 글의 steps는 문맥상 ‘조치’를 의미하므로 ②가 가장 가까운 뜻이다.

10 정답 10 ②, 11 ③

어휘 upcoming 다가오는 annual 연례의 diverse 다양한 heritage 유산 surrounding 주변의  
theatrical performance 연극 cuisine 요리 sample tasting 시식 regulation 규칙 vibrant 생기 넘치는  
maritime 바다의

해석 (A) 우리의 생기 넘치는 지역 사회 행사를 축하하라  
우리의 공유 유산과 문화, 지역 재능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사회를 화합시키는 연례행사인, 다가오는 도시 항구 축제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신나는 주말을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세부 사항>

- 날짜: 6월 16일 금요일 - 6월 18일 일요일
- 시간: 오전 10시 정각 - 오후 8시 정각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정각 - 오후 6시 정각 (일요일)
- 장소: 도시 항구 공원, 중심가, 주변 지역

<주요 행사>

- 라이브 공연  
축제가 벌어지는 지역에 설치된 여러 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라이브 음악과 춤, 연극을 즐기세요.

■ 푸드 트럭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와 무료 시식을 제공하는 다양하게 엄선한 푸드 트럭에서 잔치를 즐기세요.

행사와 활동의 전체 일정을 확인하려면, [www.cityharbourfestival.org](http://www.cityharbourfestival.org)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552) 234-5678을 눌러 축제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세요.

10. ① 당신의 지역 사회를 위한 안전 규칙을 만들어라

③ 당신의 흥미로운 바다 경험을 계획하라

④ 우리 도시의 유산을 재창조하라

**해설** 10. 공지/안내문은 첫 문장에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나므로 처음 한두 문장을 통해 제목을 유추할 수 있다. 첫 문장에서 지역 사회를 화합시키는 도시 항구 축제를 열게 되었다고 말한 뒤, 세부 사항과 볼거리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우리의 생기 넘치는 지역 사회 행사를 축하하라’이다.

11. ③ 볼거리의 푸드 트럭 설명에서 맛있는 요리와 무료 시식은 언급되었지만, 무료 요리 강습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첫 문장에서 연례행사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세부 사항의 시간에서 오후 6시까지 열린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려면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2 정답 ④

**어휘** customs 세관 declaration 신고 upon ~하자마자 notable 주목할 만한 feature 기능 advance 사전의 submit 제출하다 ongoing 진행 중인 modernization 현대화 initiative 계획 border-related 국경 관련한 further 더욱 overall 전반적인 simply 그냥 latest 최신의

**해설** 세관 신고를 위해 새로운 Enter-K 앱을 사용하세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Enter-K 앱을 사용하세요. Enter-K가 제공하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은 사전 신고서 인데, 이것은 여행자들이 미리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고,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모든 국제공항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행 중인 여행자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Enter-K는 향후에도 국경 관련 기능을 계속 도입하여 전반적인 국경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냥 최신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또한 모바일 기기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웹 버전의 앱도 있습니다.

① 여행자들이 미리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② 더 많은 기능이 나중에 추가될 것이다.

③ 여행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④ 개인용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동한다.

**해설** ④ 마지막 문장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웹 버전 앱도 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두 번째 문장에서 Enter-K 앱은 여행자들이 미리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해 준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세 번째 문장에서 향후에도 국경 관련 기능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네 번째 문장에서 도착 전에 여행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3 정답 ④

**어휘** commissioner 위원 responsibility 업무, 책임 principal 주요한 regulatory 규제하는 agency (정부) 기관 state 국가 be responsible for ~에 대한 책임을 지다 minimum wage 최저 임금 prevailing wage 통상 임금 overtime 초과 근무 authority 권한 minor 미성년자 resolve 해결하다 regarding ~에 관하여 right 권리 enforcement 집행 fairly 공정하게 compensate 보상하다 promote 촉진하다 takes action 조치를 취하다

**해설** 노동위원회(OLC) 업무

OLC는 국가의 주요한 노동 규제 기관이다. OLC는 최저 임금과 통상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이 피고용자에게 지급되고 피고용자들의 휴식 및 점심시간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그 외에도 OLC는 미성년자의 고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비전이자 사

명이다. 여기에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 OLC는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모든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집행 조치를 취한다.

- ① 피고용자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도록 보장한다.
- ② 성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 ③ 고용자들의 사업 기회를 촉진한다.
- ④ 피고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조치를 취한다.

**해설** ④ 마지막 문장에서 OLC가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일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집행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피고용자들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글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세 번째 문장에서 OLC가 미성년자의 고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고용자들의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글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4 정답 ④

**어휘** ministry (정부의 각) 부처 food poisoning 식중독 cross-contamination 교차 감염 neglect 소홀히 하다 utensil (가정용) 기구 mitigate 완화시키다 refrigerate 냉장 보관하다 thoroughly 완전히 yolk 노른자 white 흰자 staggering 믿기 어려운 bacteria 세균 thrive 잘 자라다 approximately 대략 optimal 최적의 consume 섭취하다 raw 날 것의 undercooked 덜 익힌 separate 분리하다 identify 확인하다 infection 감염 prioritize 우선시하다 measure 조치 adhere to ~을 준수하다 minimize 최소화하다 immune system 면역계 treatment 치료(제) life span 수명 handling 취급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을 만지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소홀히 하는 교차 오염의 결과로 식중독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계란을 냉장 보관하고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7,400명의 사람들이 살모넬라균이 일으키는 식중독을 경험했다. 살모넬라균은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라는데, 대략 섭씨 37도가 최적의 생육 조건이다.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을 섭취하고,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 살모넬라균 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살모넬라균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절한 조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계란 섭취가 면역계에 미치는 이점
- ② 살모넬라균 감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제 종류
- ③ 따뜻한 온도에서 살모넬라균의 수명
- ④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한 계란의 안전한 취급

**해설**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중심 소재인 계란(살모넬라균) 식중독을 언급하였고, 주제문인 두 번째 문장에서 계란의 올바른 취급 방법과 조리법을 권고하였다. 이후 문장에서 살모넬라균의 생육 조건과 식중독 발생 원인을 설명한 후 마지막 문장에서 식품 안전 조치와 적절한 조리 방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제문 강화 및 재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한 계란의 안전한 취급’이다. ①, ②, ③은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 15 정답 ①

**어휘**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address 처리하다 disparity 격차 persistent 지속되는 achievement 성취 highlight ~을 두드러지게 하다 significant 상당한 inequity 불공평 reveal 드러내 보이다 marginalize 사회적으로 소외하다 low-income background 저소득층 vulnerable 취약한 lag behind ~보다 뒤지다 peer 또래 academic 학업적 performance 수행 pose a challenge to ~에 도전을 제기하다 achieve 달성하다 equity 평등 mobility 유동성 expert 전문가 emphasize 강조하다 target 표적으로 삼다 intervention 개입 equitable 공평한 allocation 할당 inclusive 포괄적인 bridge the gap 간극을 메우다 ensure 보장하다 irrespective of ~와 관계없이 socioeconomic 사회경제적인 status 지위 divide 차이 address 다루다 deal with ~을 다루다 policy 정책 method 방법



**해석** 교육격차를 다루기 위한 계속 진행 중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성취 격차는 교육제도에서의 상당한 불평등을 계속 두드러지게 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포함한 소외계층 학생들은 학업 성적에서 동료들보다 계속 뒤처지고 있다. 그 격차는 교육 평등과 사회 유동성 달성에 도전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표적형 개입,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 및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교육격차의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①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 ② 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학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③ 성취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다.
- ④ 가계 소득은 교육 논의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글의 중심 소재는 ‘교육격차’이고 주제는 마지막 문장이다. 교육격차가 성취의 격차로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마지막 문장에서 교육격차 문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의 요지는 ①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 16 정답 ③

**어휘** guardian 보호자 desperate 간절한 urge 욕구 restorative 회복의 let off steam 울분을 발산하다 range (범위) ~에 이르다 academic 학업의 performance 성적 improve 향상하다 quality time 귀중한 시간 boost 고양하다 environmentalism 환경보호주의 adulthood 성년(기) access 접근 urban 도시의

**해석** 어린아이의 모든 부모나 보호자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구와 동네 공원으로 가는 심지어 짧은 소풍의 마법 같은 회복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① 여기에는 어쩌면 단지 울분을 발산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 ② 아이들이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의 이점은 대단히 커서, 학업 성적 향상에서 기분과 집중력 개선에 이른다. ③ 야외 활동은 그들이 가족과 귀중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든다. ④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은 또한 성년기에 환경보호주의를 고양한다. 도시의 녹지에 접근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우정에서 한몫을 할 수 있다.

**해설** 글의 중심 소재는 자연 체험이고 자연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①은 자연을 접하는 것이 울분 발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했고 ②와 ④는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낳는지 이야기한다. 이에 비해 ③은 야외 활동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17 정답 ③

**어휘** air pollution 대기 오염 measure 측정하다 suspend 뜨게하다 evaluate 평가하다 clean up 정화하다 agenda 안건 legislator (입법부의) 의원 industrialize 산업화하다 establish 마련하다 guideline 지침 constitute ~에 해당하다 excessively 매우 pollutant 오염물질 amendment (법안·헌법 따위의) 수정(안) improvement 개선

**해석** 경제학자 Chay와 Greenstone은 1970년의 대기 오염 방지법 후에 대기 오염 정화의 가치를 측정했다. ( ① ) 1970년 이전에는 대기 오염에 대한 연방 규정이 거의 없었으며, 주의회 의원들의 주요한 안건이 아니었다. ( ② ) 그 결과 많은 카운티들은 공장이 그들의 공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이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몇몇 매우 산업화된 카운티들에서 오염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 ③ ) 특히 많은 도시 카운티에서 떠 있는 입자의 총계로 측정된 대기 오염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대기 오염 방지법은 매우 높은 수준의 특히 위험한 다섯 개의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 ④ ) 1970년의 법과 1977년 개정안을 따르면서, 공기의 질에서 개선이 있었다.

**해설** 중심 소재는 대기 오염 방지법이고, 대기 오염 방지법이 생기기 이전의 문제를 소개하고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 개선이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주어진 문장은 많은 카운티의 대기 오염의 위험 수준을 경고하는 내용인데, In particular를 근거로 보아 이 글의 앞에는 카운티들의 일반적인 오염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후 오염 중에서 대기 오염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③의 앞에서 많은 카운티가 공장이 공해에 대한 어떠한 규정 없이도 가동하도록 허용했고, 그래서 오염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8 정답 ②

**어휘** witness 목격하다 shove 밀어 넣다 loaf 빵 한 덩이 (pl. loaves) wrap 두르다 swiftly 신속히 tear off ~을 떼어 내다 chunk 덩어리 clutch 움켜잡다 cling 꼭 붙잡다 slice 썰다 entire 전체의 hearty 영양가 있는 raisin 건포도

**해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 목격할 수 있기 전에, 빵 덩어리들을 셔츠 아래로 밀어 넣고 사냥 재킷을 나에게 단단히 두른 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B) 빵의 열기가 피부에 타들어 갔지만, 나는 그것을 더 꼭 움켜잡고 생명을 꼭 붙잡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빵은 다소 식었지만, 속은 여전히 따뜻했다. (A) 내가 그것들을 식탁에 떨어뜨리자 언니의 손이 닿아 덩어리를 뜯어냈지만, 나는 언니를 앉게 하고 어머니가 식탁에 앉도록 강권한 후, 따뜻한 차를 따랐다. (C) 나는 빵을 얇게 썰었다. 우리는 빵 한 덩어리를 한 조각씩 먹었다. 건포도와 견과류로 가득 찬, 좋은 영양가 있는 빵이었다.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빵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고 말한다. (A)는 식탁에 빵을 내려놓고 식구들을 식탁에 앉히는 장면이고 (B)는 집에 도착해서 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상황이며 (C)는 빵을 썰어서 먹는 모습이다. 시간의 흐름과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맥락을 근거로 볼 때, 주어진 문장에서 빵을 들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서 (B)에서 집에 도착한 다음 (A)에서 빵을 식탁에 내려놓은 뒤, (C)에서 빵을 썰었다는 이야기의 전개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② (B)→(A)→(C)이다.

19 정답 ①

**어휘** fertility rate 출산율 project 예상하다 shrink 줄어들다 population 인구 the planet 지구 transition 추이 significant 심각한 aging 노령화 demographic 인구 통계상의 shift 변화 taxation 세금 부과 healthcare 보건 caregiving 부양 retirement 은퇴 ensure 확실하게 하다 soft landing 연착륙 landscape 상황 emphasize 강조하다 concern 우려 challenge 과제 mitigate 완화하다 inverted 거꾸로 된 structure 구조 phenomenon 현상 compensate for ~을 벌충하다 immediate 즉각적인 resolve 해결하다

**해설** 감소하는 출산율은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 거의 모든 국가의 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출산율은 4.7이었지만, 2017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2100년에는 세계 출산율이 1.7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2064년경에 97억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이 세기가 끝날 무렵 88억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추이는 또한 인구의 심각한 노령화로 이어져, 태어나는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80세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인구 통계상의 변화는 세금 부과, 노인들의 보건, 부양 책임, 그리고 은퇴를 포함해서 미래의 과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새로운 인구 통계학적 상황으로 확실히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은 이 추이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② 거꾸로 된 연령 구조 현상을 완화한다
- ③ 감소한 결혼율 문제를 벌충한다
- ④ 문제들을 해결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해설** 글의 중심 소재는 출산율 감소이고 주제문은 빈칸이 있는 문장으로, 출산율 감소라는 현상을 적시한 뒤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조의 글이다. 빈칸의 주어인 Such a demographic shift가 중심 소재를 가리키며 빈칸 이후의 including ~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글의 핵심 idea를 부연 설명한다. including 이후에 세금 부과와 노인 복지 등 많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문제가 열거된다. 이후 문장에서도 인구 통계상의 변화로 인한 문제를 신중히 다루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미래의 과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이다. ②와 ④는 글의 내용과 반대되고 ③은 글에 언급되지 않는 소재이므로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20 정답 ③

**어휘** blame A for B B에 대해 A를 비난하다 inattention 부주의 to oneself 속으로 character 괴짜 ever 한 번이라도 incompetent 무능한 initial 초기의 conclusion 결론 personality 인성 delivery 전달 essentially 근본적으로 hold responsible ~에게 책임을 지우다 poorly equipped 제대로 갖추지 못한 comprehend 이해하다 raise 높다 ignore 무시하다 analyze 분석하다 assume 떠맡다 responsibility 책임 inherently 본질적으로 competency 능력

**해설** 많은 청자들은 “누가 저런 괴짜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까? 그가 그의 메모를 보고 읽는 것을 한 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주의에 대해 화자를 탓한다. 경청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말하는 사람을 보고 “이 남자는 무능해. 거의 누구라도 저것보다는 말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초기 유사성으로부터 그는 다른 결론으로 넘어가서, “하지만 잠깐. 나는 그의 인성이나 전달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이 남자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나?”라고 생각한다. 근본

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듣는다.” 우리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① 말하는 사람이 아는 것을 무시하는 것
- ② 화자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
- ④ 연설자의 연설 전달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해설** 글의 중심 소재는 좋은 경청 자세이다. 첫 문장에서는 잘 듣지 못한 것에 대해 화자를 비난하는 일반적인 통념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어 경청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면서 경청하는 사람이 듣기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글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빈칸 앞의 문장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청하는 사람은 화자의 전달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적극적 관심과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은 화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청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③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전격 분석 국어/영어 학습법

국어 이선재

영어 이동기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국어와 영어 과목별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단기가 전격 분석했습니다.

공단기 국어 이선재, 영어 이동기 교수님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한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변화하는 시험에서도 고득점에 성공하는 과목별 학습법을 확인하세요.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 출제기조 전환 전격 분석 [국어]

### 공무원 국어 학습의 확실한 기준 공단기 국어 이선재



2025년부터 공무원 9급 국어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이 확정되었다. 인혁처는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20개의 예시 문항을 공개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어 출제기조 전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인혁처가 공개한 예시 문항에는 독해 문제가 총 12문항으로 제일 많았으며, 문법과 어휘가 총 5문제 출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었던 문학 지문 분석과 한자 문제가 빠지고, 이를 논리 영역이 대체한 것이다. 또한 기존 공무원 기출 유형과 겹치는 문제도 꽤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2017년 이후 공무원 국어 문제의 유형이 수능식으로 바뀌고 독해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총 20문항 중에서 신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즉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거나 그간 거의 출제되지 않은 유형은 논리 3문제와 독해 2문제(논증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출제 영역	신유형	문제 유형
독해 (13)	논증 평가	내용 일치(2) 내용 추론(3) 내용 배열(1) 개요 구성(1) 내용 수정(1) 화법(1) 논증 평가(2)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2)
어휘 (1)	-	한자 어휘(1)
문법 (3)	-	공문서 수정(1) 형태론 - 단어의 유형(1) 통사론 - 높임의 종류(1)

논리 (3)	연역 추리	논증의 타당성 평가 - 가정적 조건문, 삼단 논법 등을 활용한 결론 도출 - 생략된 전제의 추론
-----------	-------	---

## 변화 대비에 탁월한 국어 학습법

### • 문법

문법은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 문법 개념어를 학습하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다. 그러나 선행 학습을 했던 재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초시생들은 기초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문법은 개념과 이론을 압축적으로 익힌 후 문제 풀이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일 것이다.

→ 선재국어의 《수비니겨 기본서》 또는 《수비니겨 문법과 규범》으로 개념을 확실히 익혀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자

### ● 독해와 어휘

독해는 총 12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중 초시생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60% 밑으로 내려간 문제가 4문항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8문항은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나머지 4문항이 실력을 변별하는 문제였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 9급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논증 평가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난도 중하의 기본 유형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신유형과 난도가 높은 일부 문항을 대비해야 한다.

어휘는 독해와 결합하여 2문항이 출제되었다. 예시 문항에는 문맥적 의미의 파악과 유의어를 찾는 문제가 나왔으나, 앞으로는 한자 어휘의 난도를 올려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독해와 함께 어휘력을 높이는 데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 독해가 약한 학생은

《수비니겨 독해》로 기초를 잡은 뒤, 독해 훈련 《독해야 산다》와 《매일 국어》

→ 독해가 강한 학생은

《추론 강화형 독해》로 심화를 잡은 뒤, 독해 훈련 《독해야 산다》와 《매일 국어》



## ● 논리

논리는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영역은 출제기조 전환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영역으로, 초시생이나 재시생 모두 어려움을 느낀 영역이었다. 이번 예시문제는 모두 연역 논리에서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표준 정언 명제의 형식을 이해하고 기호화하는 방식을 익힌 뒤, 논리적 동치와 함축 규칙을 적용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논리 학습은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몇몇 기호화 방식만 익혀 도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난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후 개설되는 《선재국어 논리》 수업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여러 방식을 ‘논리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 《수비니겨 기본서》 또는 《수비니겨 논리》로 논리를 쉽고도 깊이 있게 정복하자

## 고득점에 강한 공단기 국어 커리큘럼

### 2025년 합격을 위한 선재국어 커리큘럼

5월	예상 기출서 1	인혁처 예시 문항을 완벽히 분석한 《선재국어 예상 기출서 1》이 출간됩니다.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과 핵심 이론을 학습하여, 새로이 출제되는 공무원 국어 학습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초시생뿐만 아니라 재시생도 이 책 한 권으로, 변화하는 시험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개념 학습 + 신영역 대비 + 문제 유형 분석
5월~6월	수비니겨 논리	논리 영역 3문제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가장 쉽고도 깊이 있게, 논리에 대한 논리를 알려 드립니다. 논리는 제대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위한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시생은 이 영역만 선행 학습을 하면, 2025 시험을 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논리 이론 학습 + 핵심 문제 풀이
	수비니겨 문법	초시생과 재시생을 대상으로 시험해 본 결과, 재시생의 정답률이 월등히 높은 문법!! 개념을 확실히 학습하여, 문제 풀이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립니다. - 문법 개념 학습 + 지문 분석 + 예상 문제 풀이
7월~8월	수비니겨 기본서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개념 학습 이론서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전체 영역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을 위한 효율적인 기본서가 곧 공개됩니다. - 전체 영역 개념과 이론 학습 + 핵심 문제 풀이
	수비니겨 독해	인혁처 예시 문항 중 12문제가 독해!!!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4문항!!! 기본 독해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난도 있는 유형까지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선재국어 문제는 진짜 문제 질이 좋습니다. 입증된 문제로 독해를 대비하세요. - 기본 유형부터 심화 유형까지, 한꺼번에 대비하는 올인원 독해 수업

9월	예상 기출서 2	《선재국어 예상 기출서 1》에 이어 보다 강화되고 심화된 문제를 담은, 《예상 기출서 2》가 나옵니다. 선행 학습한 이론과 유형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최고의 문제들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 개념 정리 + 신영역 완벽 대비 + 풍부한 예상 문제와 기출문제 풀이
11월	압축 마무리	시험 직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 유명한 마무리 책이, 올해 더욱 효율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시험장에는 이것만 들고 가세요. - 전 영역 초효율 압축 정리 + 핵심 예제
12월~4월	모의고사	-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Daily		독해 강화 훈련 - <독해야 산다>
		일상적 문제 풀이 훈련 - <매일 국어>

## 출제기조 전환 전격 분석 [영어]

### 공무원 영어 학습의 확실한 기준 공단기 영어 이동기



2025년 시험 출제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단 1회분(20문제)의 예시문제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단지 이 하나의 자료만으로 불확실하고 단편적인 예측에 기반하여 출시되는 교재와 강의는 주의해야 한다. 이전 공무원 기출문제를 모두 종합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새로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만 취사선택, 이어서 최단기간 내에 이 콘텐츠를 익히고 연습하여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리큘럼과 교재를 선택한다면 깜깜한 밤바다처럼 불확실한 2025년 시험에서 단연코 합격이라는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영어 출제기조 전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 1.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

기존의 시험에 비해 새로운 출제기조가 보여주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영역은 확연히 그 출제의 범위가 좁혀진다. 실용성, 즉, 실제 자주 사용되는 어휘, 표현, 문법 사항이 주로 출제될 것이며 암기형 문제에 적합한 어휘, 문법 포인트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출제되지 않을 어휘와 포인트는 과감하게 버리고 많이 사용되는 어휘, 표현,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법 포인트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기존의 학습보다 학습 범위는 줄이되 좀 더 많은 반복을 통해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안전한 합격의 비결이 될 것이다.

##### 2. 전자메일, 안내문, 메신저 대화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 활용

출제기조 변화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문제 유형은 바로 실용문이 제시된 문제들이다. 이메일, 공지 글, 메신저 대화가 문제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 유형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실용문은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학술문과는 읽는 방법에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실용문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만 이루어진다면 글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득점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 3. 결국, 독해 문제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어휘, 생활영어, 문법, 실용문의 경우 그 출제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되기 어렵다. 즉,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합격은 대략 10문항 정도 출제되는 학술문을 자료로 하는 독해 문제와 수험생들에게 가장 덜 익숙한 문법 포인트가 출제되는 문법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술문을 자료로 하는 독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술문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긴 문장도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끊어 볼 수 있는 문법, 구문에 대한 학습과 문제 유형별 정답에 대한 근거를 수월하게 찾기 위한 문제 유형별 독해법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직접 많은 독해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독해 연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변화 대비에 탁월한 영어 학습법

### • 신유형 대비 학습법 4 POINT

- [1] 새로운 문제 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모의고사 실전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신유형”이 반영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한다.
- [2] 새로운 출제기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영역별로 학습에 꼭 필요한 것만 제공하는 교재와 강의를 잘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3] 어휘, 생활영어, 문법 영역 파트는 이전보다 학습의 범위를 줄여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집중하여 학습해야 한다.
- [4] 결국 독해 문제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변화된 독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중요해졌으며, 특히 “실용문” 문제는 강의를 통해 문제풀이 방식을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

### • 영역별 학습법

#### ● 어휘

- ①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있어 어휘는 기본 도구
- ② 기본 어휘에 대한 확실한 암기 필수!

- ③ 1-2회독에는 표제어 중심 암기, 3회독 이후부터 예문 학습 및 동의어/반의어/파생어 등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며 꾸준히 plan대로 암기하기

‘단어 암기의 비법은 없다. 어휘 학습은 ‘반복’만이 살길이다.’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에서도 어휘를 몰라 정답을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기본 어휘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이루어지면 어휘 영역뿐만 아니라, 문법/독해 학습에서도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학습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 ● 생활영어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표현만 정리하여 암기하고, All-In-One 교재와 강의를 통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풀이 비법을 배운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영역이다. 하프 모의고사 등의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 대화의 문맥과 키워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문제풀이 시 몰랐던 표현이 나온다면 별도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 ● 문법

- ① 최빈출 문법 50포인트 정리
- ② 문제 풀이를 통해 적용

‘이론을 익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문법 문제의 경우, 3~4문항이 출제된다. 최근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를 묻는 문제 없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가장 빈출되었던 문법 포인트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빈출 되는 문법 포인트 중심으로 이론을 학습한 후, 배운 문법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풀이로 연습을 해 나간다면 영어 고득점이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운 문법 포인트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암기가 부족한 것, 이해가 부족한 것을 구분하여 틀린 문제의 경우, All-In-One 교재를 통해 해당하는 문법 포인트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 ● 독해

- ①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 ② 문제 유형별 독해법 학습 후, 매일 5문제 적용해보기
- ③ 복습은 문장, 지문, 선택지 3가지 분석법으로 꼼꼼하게 복습하기

매 시험 독해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지문이라도 정답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있다.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습관화하고 이후,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반드시 학습

하길 바란다. 학습한 독해법을 자신의 독해 비법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5개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반드시 독해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정답 확인 후에는 문장 분석, 지문 분석, 선택지 분석의 꼼꼼한 분석식 복습을 통해 독해 학습을 유지하라.

● 전 영역

‘전 영역은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 매일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해도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면 실전에서 당황하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험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은 모의고사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문제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여 출제한 실전 시험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전 문제 문항 수(20문항)의 절반, 즉 10문항을 부담 없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하프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직전 개설되는 동형 모의고사 강좌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고득점에 강한 공단기 영어 커리큘럼

새로운 시험에 대비하는 이동기 영어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

기본 (개념완성)	新경향 공무원 영어 All-In-One (1,2권)		
	문법·구문	독해	어휘·생활영어
문제풀이 (요약 + 연습)	新경향 공무원 영어 실전문제풀이		
	문법 문제풀이 (+요약)	독해 문제풀이	어휘·생활영어 문제풀이
파이널	기적의 특강, 동형모의고사 시리즈		

선택 커리큘럼

기초 / 입문	기초: 풀문법 / 입문: 新경향 공무원 영어 All-In-One (1권)
어휘	新경향 공무원 VOCA
하프	1. Foundation / 2. Completion
테마 특강	생활영어 기출 총정리, 독해 출제자의 뇌구조

2025년 9급 출제기조 전환  
**신유형 공략 안내서**  
변화하는 시험에 빠르게 대응하라!

MEMO

공단기